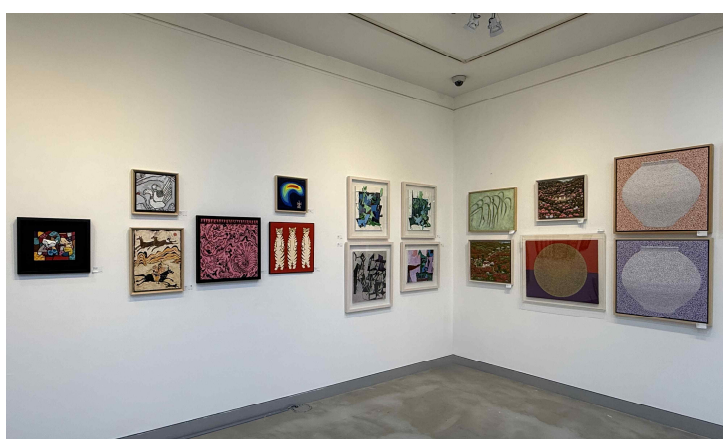




가을 마이컬렉션

본회(회장 권영걸)는 '2025가을 마이컬렉션'을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한다.

마이컬렉션은 서울대학교 동문 등이 소장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전시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모아온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수집자의 시선과 취향을 반영하며, 관람객에게 또 다른 감상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새로운 소장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전시는 단순히 판매전의 의미를 넘어, 예술을 통한 교류와 미적 경험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 세계적인 색채의 마법사 로메오 브리토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



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동문들의 작품도 눈에 띄었는데 한국의 민화, 특히 호랑이를 주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김소선(63조소) 동문의 작품과 도시와 사람,

흔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주제로 모더니즘 약식의 조형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는 유인수(66회화) 동문의 작품, 또한 서명덕(71응미) 동문의 사실적인 정물 및 인물화,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도조 기법으로 구현한 강신자(76조소) 동문의 작품 등이 참여해 전시의 폭을 넓혔다. 중국 유학 이후 고향 춘천에서 사색과 독서를 바탕으로 한 문학적 회화 작업을 이어가며, 사유적 화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광택(80회화) 동문의 작품, 일상의 풍경을 독창적인 구도와 조형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박덕실(81회화) 동문의 작품, 이외에도 유리를 회화의 매개로 사용하여 자연을 새롭게 해석하는 최진희(90서양) 동문의 작품, 바닷속 풍경을 화려하고 몽환적인 색채로 표현해 행복과 치유의 감정을 전달하는 채현교(90서양) 동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는 그간 사적인 공간에 머물렀던 작품들을 공적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수집이라는 행위를 타인과 공유하고 감상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람객은 전시된 작품을 통해 수집자의 시선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나아가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감상하는 일상적 실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전시된 일부 작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번 2025년 가을전 역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을 매개로 한 교감과 영감을 나누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처럼 마이컬렉션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예술과 삶이 맞닿는 따뜻한 축제의 장으로서, 이를 통해 좋은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을 일상 속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S-아카데미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진행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고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S-아카데미가 지난 9월 8일 개강해 오는 12월 15일까지 15주간 가을학기 미술실기 강좌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가을학기는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조명식)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인물창작(김호준)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 제작까지)(이영훈)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박혜령)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조래원) ▲유화: 초·중급(안성규) ▲사진완성클래스: 이론 & 실전 마스터(이필두) ▲자유크로키: 누드 ▲원데이클래스: 프레스코·석회벽화·템페라(선우향)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됐다. 이번 학기의 모든 강좌는 실전 경험과 교육 경력을 두루 갖춘 서울대학교 출신 강사진이 참여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개별 지도를 진행한다.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에 더해 작품제작과 이론수업을 병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스스로의 작품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기 말에는 인사동 일대에서 전시회를 열어 학습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5

S-ART BOOTH SHOW

부스 개인전

A-1 박혜경

A-2 레이치

A-3 유인수

A-4 한석란

A-5 이수현

A-6 이광택

A-7 특별전: 잔상

김윤이 박도현 이망고

11.08.토-11.15.토

10:00-18:00 (일/월 휴관)

한전갤러리 2F 기획전시실

서울 서초구 효령로72길 60 한전아트센터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문의: 02-877-8065

S-ART BOOTH SHOW 개최

본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2025 S-ART BOOTH SHOW(에스아트부스쇼)'를 서울 서초동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한전갤러리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S-ART BOOTH SHOW는 6명의 부스개인전과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총 6개의 부스에서 열릴 개인전에는 레이치, 박혜경, 유인수, 이광택, 이수현, 한석란 작가 등 6명이 참여하며 특별전 '잔상'에는 김윤이, 박도현, 이망고 작가 3인이 참가한다.

모교 동아리 미대극회 기자재 후원

공연 무대팀장을 맡은 권도윤(23조소) 학생은 "보내주신 공구 덕분에 무대 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끝마칠 수 있었다"며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기획을 맡은 박소은(24동양) 학생도 "동창회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미대극회는 모교 소속의 연극 동아리로, 1966년 실험공연 <여름>을 시작으로 꾸준히 공연을 이어온 전통 있는 예술 동아리이다. 미대생들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모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대학 연극 예술을 선도해 왔다. 미대극회는 오는 10월 16-1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내 인문소극장에서 제118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본회는 모교 서울미대극 예술연구회에 공연 준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후원했다. 후원내역은 드릴, 직소 등 무대 작업에 필수적인 공구와 공연 중 조명과 함께 사용할 포그머신 등이다. 이번

회장동정

세종시민안전포럼 참석

본회 권영걸(69응미/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회장이 지난 9월 23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열린 세종시민안전포럼에 참석했다. '세종시, 안전 도시를 넘어 복원력 중심 도시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시민·전문·가·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도시 안전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 9월 30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권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18일 박연문화관에서 개최되는 '2025년 신혼부부아카데미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권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부부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회장은 지난 3월말로 임기를 마쳤음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오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난 9월 2일자로 사임했으며,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직은 지난 9월 17일자로 퇴임하고,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연구원 (초대)원장에 취임했다.

세종연구원은 그간에 있어왔던 두 법인을 해체하고, 다시 통합하여 발족한 새로운 법인이다. 세종인재평생교육도진흥원과 세종정책연구실을 각기 등기 말소하고, 다시 통합법인으로 등록한 후 행안부에 설립승인을 받아 출범한 조직이다. 권회장은 "저에게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유년기의 새로운 계획도시를 세계적 자연생태도시, 첨단과학기술도시, 교육지식도시, 한글문화도시로 일구어 가는 연구와 교육을 해 나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며 "쉬면서 건강을 돌보고 여행이나 다녀야 할 나이에 계속 일을 하게 되어, 때로는 심폐가 없는 저의 팔자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나, 다시 신발끈을 잡아매며 주어진 직무에 성심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끔 힘든 순간도 있지만, 저에게는 저를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우리 동문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뿌듯하고, 다시 힘을 얻게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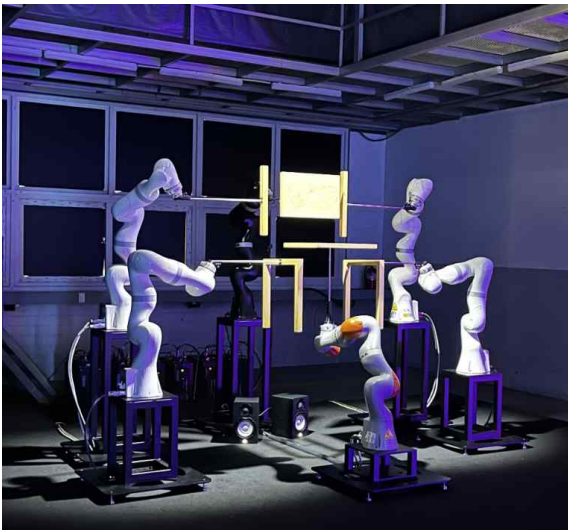
모교소식



정의철 학장 서울대예술주간 환영사

모교 정의철 학장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74동 예술복합연구동 오디토리엄에서 개최된 ‘2025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Space@SNU’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모교와 함께 서울대학교 학생처, 문화예술원, 인문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이 주관했다. 개막식은 낭독극 ‘달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디자인학부 배재혁 교수 현대 ZERO1NE 참여



모교 디자인과 배재혁 교수는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성동구 현대 성수복합 거점에서 개최된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전시 ‘2025 제로원데아’에 참여했다. 전시 주제는 ‘제로원 궤적(ZERO1NE ORBIT)’로 제로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등 사내외 창의인재가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한

다는 의미다. 배재혁 교수는 여섯 개의 산업용 로봇팔이 조각난 의자 부품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키네틱 퍼포먼스를 전시했다. 각각의 로봇팔은 두 개의 다리와 기둥, 하나의 시트와 등받이를 쥐고, 약 4~5분간 이를 반복적으로 배열한다. 이때 재구성되는 형상은 밀리터리 চে어, LC1, 세스카 চে어 등 20세기 디자인사의 상징적 의자에서 차용된 것으로, 배교수는 “의자를 단순한 가구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이자, 시스템이 기능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라본다.”고 설명하며 “로봇팔의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기능과 형식은 분리되고, 사물은 끊임없이 형태를 갱신하는 과정 자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우리는 기술, 디자인, 신체가 얹혀 오늘날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새롭게 마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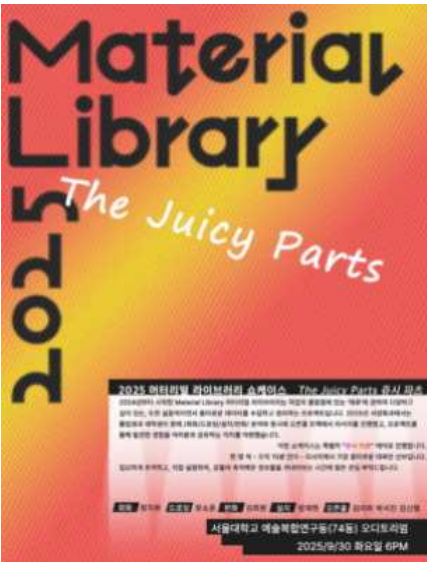
디자인학부 디자인역사문화전공 연례보고전



전환의 시대, 디자인의 자리
2025. 9. 22. Mon — 9. 26. Fri
10 AM — 5 PM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연구동(49동) 1층 S&D Hall

모교 디자인학부 디자인역사문화전공이 주최하는 ‘2025 디자인역사문화전공 연례보고전’이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9동 디자인연구동 1층 S&D Hall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디자인역사문화 전공생들이 한 해 동안 진행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자리로, 학문적 성찰과 디자인 담론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환의 시대, 디자인의 자리’를 주제로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는 논문형 연구부터 동시대 시각문화와 디자인 담론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실험적 프로젝트까지 다채로운 결과물이 포함됐다. 한편 디자인역사문화 전공은 디자인의 이론적 기반을 탐구하고, 시각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아우르는 연구를 통해 디자인 담론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시 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학문과 실천의 경계를 잇는 디자인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2025 Material Library 쇼케이스



모교 서양화과가 주최하는 《2025 Material Library Showcase: The Juicy Parts(쥬시 파츠)》가 지난 9월 30일(화) 오후 6시, 미술대학 74동 예술복합연구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열렸다.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시작된 서양화과의 장기 연구 프로그램으로, 예술 작업의 출발점인 ‘재료(Material)’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재료 목록을 넘어, 작가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축적한 재료의 물성,

감각, 맥락을 공유하며 예술 실천의 토대를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 쇼케이스는 “The Juicy Parts(쥬시 파츠)”라는 주제 아래, 지난 1년간 진행된 리서치의 가장 생생하고 흥미로운 대목만을 15분씩 발표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발표자는 자신의 탐구 과정에서 발견한 ‘쥬이 가장 진한 부분’, 즉 작업의 본질적 통찰과 감각적 발견을 관객과 나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회화 정지원 ▲드로잉 장소윤 ▲판화 김희원 ▲설치 방재현 ▲오픈콜 트랙의 김미라·박서진·김신형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매체와 접근 방식을 통해 재료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실험 결과물로 제시했다.

초청특강 개최

모교는 학생들의 작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작가 등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서양화과에서는 지난 9월 23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홍중 교수를 초청하여 ‘아름다움과 종말론’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김교수는 사회이론, 문화 및 예술사회학, 미래 사회학을 아우르는 ‘마음의 사회학’을 제시했으며 한국 사회에 내재한 생존주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류세, 포스트휴머니즘, 신유물론 등 현대 사회의 주요 테마를 연구하고 있다. 조소과는 지난 9월 23일 모교가 주관 SNU 1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 23일 정연두 작가를 초청하여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했다. 정연두 작가는 퍼포먼스를 활용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작업을 선보이며 복합 매체 작업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 환경 속의 상황을 접합하는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다.

공예과 축제부스 개최



모교 금속공예전공 학생들이 2025 서울대학교 가을축제에서 ‘금속라라 스튜디오’ 부스를 선보였다. 이번 부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 잔디광장에서 운영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일은 오후 1시까지)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금속공예 전공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드는 재미와

쇼핑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주석 키링 만들기’로, 관람객들이 금속공예의 기본 원리를 배우며 자신만의 키링을 제작해볼 수 있다. 불과 망치, 몰드 등의 도구를 활용해 완성한 주석 키링은 그 자리에서 가져갈 수 있어 추억이 남는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부스 한편에서는 금속공예 전공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키링, 소품, 공예품 등을 전시·판매해, 축제의 활기 속에 예술적 감성을 더했다. 행사를 진행한 김수민(24공예) 학생은 “부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키링을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자신만의 금속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다”며 “가을의 설렘을 예술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금속공예전공 축제 부스는 학생들의 창작 역량과 공예에 대한 열정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대소식



서울대-OpenAI MOU 체결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9월 11일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OpenAI와 MOU를 체결하고, 이어 협력의 일환으로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센터에서 'AI의 미래(SNU×OpenAI: Future of AI - From Korea to the World)'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교육·연구 분야에서 생성형 AI 도구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AI 네이티브 캠퍼스 구축·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대는 생성형 AI를 교육, 연구에 통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경험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교육기관에 참고모델이 될 전망이다. 유홍림 총장은 "AI 혁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며 AI 강국 도약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제시하고, "서울대는 OpenAI를 비롯한 국내외 AI 기업과 협력해 인류 공동의 지혜를 만드는 학문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을축제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가을축제 'SNUFESTIVAL: Scenario'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서울대 구성원 각자의 소중한 일상이 모두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기하 축제기획단장(치의학과23)은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가을 축제가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으로 남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 현장에서는 축제기획단이 준비한 부스와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각종 장터가 다채롭게 운영됐다. 2일 차 낮에는 잔디광장에서 △미니게임 △리오 모으리오 △슬기로운 미식생활/예술생활 △굿즈 등 일반 부스가 오후 1시부터 운영됐고, 학생들과 아티스트들이 야외 공연을 펼치는 '샤운드 오브 뮤직' 1부도 오후 1시 30분부터 함께 진행됐다. 축제 3일 차에는 버들골에서 폐막제가 열렸다. 유튜버 섭이네가 진행을 맡은 이번 폐막제는 오후 4시부터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SNUFESTIVAL: Scenario'는 긴 방학 이후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열정과 낭만을 불어넣었다. 김기하 축제기획단장은 "날씨가 좋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며 "많은 구성원이 축제를 즐겨 줘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개교기념식 및 종합화 50주년 기념주간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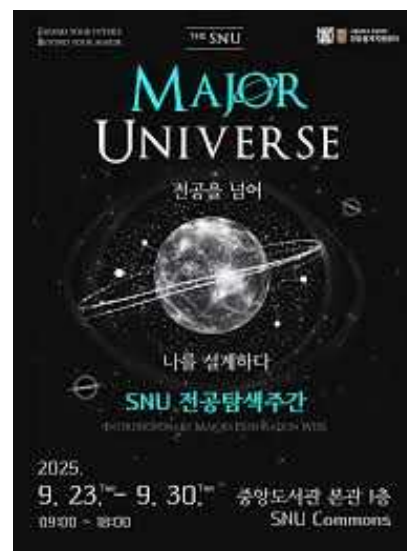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는 지난 10월 14일 제79회 개교기념식 및 종합화 50주년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종합대학으로서 50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우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개교기념식은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됐다. '사회보상사상', '발전공로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또한 올해는 종합화 5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의 비전을 담은 '종합화 50주년, 경계를 넘어 세계로' 영상 상여과 더불어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상징하는 27개의 깃발들이 무대로 모이는 퍼포먼스 공연이 진행됐다. 더하여, 종합화 50주년 주간이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각 단과대 및 기관에서 기념 행사들이 다양하게 개최된다.

2025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Space@SNU 개최



서울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2025 서울대 예술주간, ArtSpace@SNU'를 개최했다. 서울대 관악, 연건, 평창, 시흥캠퍼스 및 지역사회 공간에서 총 67건의 예술 행사가 펼쳐졌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예술주간'은 서울대 구성원의 창조적 역량을 학내외에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정해 예술 행사로서의 동시대성과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었다. 올해 주제는 "삶은 예술?"로, 일상 속 예술과의 접점을 넓혀온 지난 10년간의 철학을 유희적으로 담아냈다. 행사는 음악, 미술, 문학, 패션, 거리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됐다. 서울대는 "2025 예술주간이 일상에서 예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무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2025 The SNU Major Universe



서울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발맞춰, 학부대학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SNU 전공탐색주간」을 기획하였다. 행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SNU Commons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단일 학과 및 전공 중심의 틀을 넘어, 교내 여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융합 전공 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학부 과정의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교과인증과정, 혁신융합대학 등, 대학원 과정의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대학원 협동과정 및 융합전공 등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업 설계를 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영감을 제공했다.

2025 하반기 전학대회



지난 9월 9일 이공계멀티미디어강의동(43-1동)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논의 및 의결을 비롯해 각종 예·결산안 심의, 총학생회(총학) 및 산하 자치 기구의 활동 보고와 차기 계획 인준이 이뤄졌다. 당초 오후 7시에 예정됐던 이번 회의는 정족수 81명을 채우지 못해 30분가량 늦어졌고, 대의원 81명의 출석으로 오후 7시 28분에 개회해 23시 18분에 폐회했다.

총동창회소식



총동창회·관악회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8월 27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2학기 장학금수여식에서 771명에게 21억 84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기부자 동문과 내빈, 장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에 입장하는 기부자들을 향해 장학생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수여식 내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대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편,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김종섭)의 장학금 규모가 올해 42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일 대학 동창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1980년부터 2025년 2학기까지 관악회 누적 장학생은 2만 1200명, 지급액 누계는 529억원에 이른다. 관악회는 앞으로도 학업 성취와 더불어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며 선순환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총동창회 조찬포럼



총동창회장,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 손경식(57법학) CJ 회장, 조완규(48생물) 전 서울대 총장, 서병륜(69농공) 관악경제인회장, 김덕길(66건축) 일본총동창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과학자이자 정책가로서, 그리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경험을 가진 오 전 총장은 울여름 상하이와 항저우의 AI 산업단지와 대학을 직접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한국의 길을 짚어냈다. 오 전 총장은 AI가 이제 단순 작업뿐 아니라 인간의 두뇌까지 대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회계·의학·교육 등 지적 노동이 빠르게 영향을 받는 만큼 “새로운 직업에 대비한 재교육과 교육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



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 조찬포럼이 지난 8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장, 허진규(69금속) 일진그룹 회장, 성기학(66무역) 영원무역 회장, 이희범(67전자) 부영그룹 회장, 김중훈(69건축) 한미글로벌 회장, 오세정(71물리) 전 서울대 총장,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

등 60여 명의 동문 기업인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반기문(63 외교) 전 UN사무총장은 ‘탄소중립시대, 기업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반기문 동문은 외교부 장관을 거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UN사무총장을 연임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임기 동안 기후변화 대응, 평화유지활동, 빈곤퇴치 등 글로벌 의제를 이끌었으며, 퇴임 후에도 반기문재단 이사장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으로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혜·장호 동문 각 1000만원 기부

이미혜(79화학교육) 동문이 모친 김순희 여사의 이름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세상을 떠난 모친의 뜻을 기려 장학사업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장호(67법학) 동문도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후학 지원에 동참하고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총 기부금은 3473만 5000원으로, 50여 명의 동문과 단체가 참여했다. 8월 말 기준 2025년 누적 기부금은 26억 3988만원이다.

홈커밍데이 동문나눔 한마당

- 일시 : 10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풍산마당
*우천 시 실내(종합체육관)행사로 대체
- 행사내용 :
 - 캠퍼스 자율탐방(11:00~13:00, 캠퍼스 일대)
코스, 기관별 도슨트 등 자세한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11:00~13:00, 풍산마당) 본인확인 및 행운권 접수
무더위 안전상 이유로 도시락 대신 간단한 간식 및 생수 제공
 - 식전행사(11:00~13:00, 버들골)
재학생 동아리 활동 참관, 미니게임 참여, 사회공헌 기금 모금
 - 다양한 푸드트럭 운영(10:00~17:00)
 - 공식행사(13:00~16:30, 풍산마당)
개회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
 - 경품 수령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입학·졸업 10·20·30·40·50·60년을 맞이하시는 동문 대상 이벤트 예정
- 참가신청:
 - 10월 10일(금)까지 문자(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ac.kr) 제출
 - 제목 : 홈커밍데이 참가 신청
 - 성명 :
 - 학과 / 입학연도(특별과정은 과정명 및 기수 기재)
 - 인원수(본인포함) : ○명
 - 휴대전화번호 :
- 홈커밍데이 행사 협찬 안내: 협 찬 금 : 100,000원 이상
 - 계 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연도 표기(특별과정은 이름, 과정명, 기수 표기)
- 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11월 조찬포럼

- 일시 : 11월 13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더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서울시청앞)
- 강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주제 :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 참가신청[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1599-7704 이메일/member@snu.ac.kr
 - 참가비 : 5만 원 (조찬, 도서 또는 기념품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 홍길동11월조찬)
 - 11월 5일(수) 이후 신청취소 시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 02-702-2233

회비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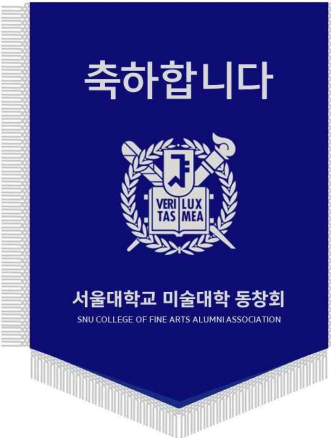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9.16-10.15)

- 일 반 회비 김성진(11공예) 조창환(86조소)
- 광고후원금 김소선(63조소) 나성숙(71응미) 차명희(64회화) 각 3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 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유금란(75응미) 본인상



유금란 동문이 지난 10월 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79년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후 활발히 작업을 이어왔다.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2025), 마루아트센터(2025), KBS시청자갤러리(2008) 등에서 개인전을, 수평과 지평전 등 단체전을 100여회 가졌으며, 목우회, 한국수채화, 한국수채화 대전, 회화대전 등 공모전에서 특선 및 입선을 했다. 또한 수평과지평, 한국수채화 작가협회 서초미협, 한국미협, 한울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가을학기 수강생모집

2025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원데이	
오전 10 - 13시	기초소묘드로잉 인체를 이용한 기초 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프레스코 Fresco·Secco (석회벽화·템페라) 선우향
	자유 크로키 누드	사진 완성 클래스 이론&실전 마스터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수채화 초·중·고급	10월 25일 (토) 10-17시 (점심휴식 1시간)	
오후 14 - 17시	강사 없음	이필두	변영혜	박혜령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강좌별 수시모집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9.8(월)~12.15(월) 15주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강좌: 10~13시 / 오후강좌: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복수신청 가능)

수강료

강좌별 45만원(15주 기준)
*자유크로키 24만원(12주 기준) 모델료 별도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동문탐방

오용길(65회화)

2025년 9월 이뉴스 편집팀이 안양에 위치한 작업실을 방문하여 예술원회원이 되신 오용길동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림을 전공으로 택하게 된 동기는

중학교 시절 이재호동양화가에게 미술을 배우며 화가가 되고자 스스로 서울예고에 지원하게 되었다. HB연필만 있는 줄 알았던 나는 입시 전날 4B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간신히 구입해 입학시험을 치렀다. 입시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므로 그때는 수준은 미달이지만 열심히 작품을 그렸던 것 같았다.

예고시절의 추억은

예고에 입학한 후 윤 종계도 김창렬, 김병기, 문미애, 서세옥 등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동양화 기초, 소묘 기초부터 미술이론까지 기본기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안동숙선생님의 가르침은 현재 내가 동양화가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당시의 나는 국전을 관람할 때도 유난히 동양화를 선호했었다. 예고에는 남학생이 적어 청소도 안 시켰고 성인 양복 같은 느낌의 세련된 교복을 입었었다.



황산-군봉, 2017

대학시절과 졸업 후 일연회에 관해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서세옥 선생님은 방과 후 작업시간에 주로 오셨는데 실험 정신을 강조하셨고, 박노수 선생님은 동양화에서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갓 귀국하셨던 김정자 선생님의 구성시간 수업 역시 나의 화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연회에서 활동하였는데 나는 2회 전시부터 참가했었다. 비슷한 연배였던 황창배, 한풍렬, 이길원, 박주영, 이양원, 정종해, 이환범 등이 멤버였는데 개인전개최가 쉽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일연회를 통해 작품발표를 하면서 본교를 알리고 본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황창배 동문은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동양화단을 눈뜨게 했고 정종해동문은 예민한 감각으로 지필묵의 섬세함과 과감함을 표현했다. 나는 사생을 기초로 작품을 제작했다. 1973년에는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큰 상들을 수상할 수 있었다.

후소회 관련해서

후소회는 가장 오래된 단체이고 윤보 김기창이 초대회장이었던 것도 의미가 있다. 2대 안동숙회장에 이어 내가 이십여 년간 회장직을 맡으면서 역량 있는 청년작가들까지 영입하였고 현재 사단법인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술원회원이 되셨는데

늘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던 나는 예술원회원인 작가들은 매우 대단하고 나

와는 멀다고 생각해왔다. 경력을 쌓다보니 언젠가부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8년 전부터 예술원 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예술원회원은 종신 제이고 전 회원의 3분의2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그 행운이 내게 찾아왔다. 예술원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작업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관리의 특별한 비법은



소식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테니스로 심신을 다스렸고 헬스클럽에도 다니며 근력운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적은 타고난 성품과 마인드컨트롤 능력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말을 생각하곤 한다.



봄의 기운, 2023

미래의 계획은

작가 오용길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술원 회원 오용길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할까.

동문과 미술계에 하고 싶은 말은

자수성가가 쉽지는 않지만 오래 버티면 이룰 수 있다고 믿길 바란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고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재능이 어중간할 경우에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작가로 살다보면 좌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초라해지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며 본인이 잘 났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지

우러러 존경받는 작가도 좋겠지만 나는 친근감 있는 작가로 불리고 싶다.

※ 오용길 동문은 1973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 1976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1978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1984 제1회 선미술상, 1989 안양시민대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쓸었으며 월전미술관, 예술의전당, 동산방화랑, 겸재정선미술관 및 오사카 로얄리갈화랑 등에서 20여회 개인전을 가졌다.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부산고등검찰청, 사법연수원, 대유문화재단, 고려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박물관, 한양대박물관, 경기도청, 한국은행, 경기도미술관, 주미워싱턴대사관 등 국내외 다수의 공공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후소회 회장 안양미술협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2025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그녀가 자작나무 숲에서 걸어나왔다'출간 최용건(69회화)

최용건 동문이 장편소설 '그녀가 자작나무 숲에서 걸어나왔다'를 지난 9월 출간했다. 책은 예술과 첫사랑이 교차한 한 예술가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풀어내며 이야기를 전한다. 1970년대 대학 시절 격동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은 동양화를 전공하며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간다. 책은 최동문의 자전적 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가슴에 남아 있는 첫사랑과 예술, 삶의 회고를 서정적으로 풀어냈다. 첫사랑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기억의 숲을 조용히 함께 걷게 만드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돋보인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최동문은 회화 작품 전시 활동으로 이탈리아 아트페스티벌, 서울 2022 G-ART FAIR, 인사동 사람들 특별전, 파라과이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동시에 글쓰기를 좋아해 푸른숲 출판사와 중앙M&B, 열음사에서 에세이집을 다수 출판하기도 했다.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과 춘천을 떠나 인제 읍내로 이주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진동리에서의 10년과 봉덕동에서 10년에 이어 현재는 인제 읍내에서 10년째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 중이다.

'예술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출간 심상용(8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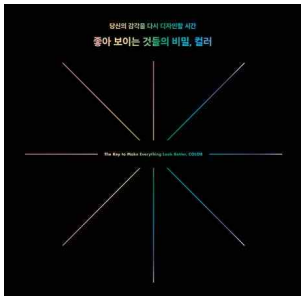
심상용 동문이 지난 8월 책 '예술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를 출간했다. 심동문은 책을 통해 이 시대 예술의 흐름과 힘의 실체를 진단하고, 그 힘을 '탈-신성화'하는 다른 힘에 관해 논한다. 낸 골딘의 사례가 하나의 예시로 들어 황폐해진 대지가 되어버린 예술에 대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주장한다. 허황된 광고나 신화를 깨뜨리고, 아름다움의 출처를 기억해 내고, 손상되지 않은 우정과 연대에서 오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로써 책은 진정한 예술의 진정한 힘이 되는 아름다움과 자유, 해방의 단초를 찾아 나아가고자 한



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심동문은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 및 D.E.A. 학위,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사, 경기도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안작가 공동체 '아트 빌리지스'를 창립하고 광고 없는 대안 미술전문지 '컨템포러리 아트 저널'을 창간했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위원,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컬러'출간 최경원(86산디)

최경원 동문이 지난 6월 책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컬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색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풀어낸 디자인 입문서다. 색상환, 명도·채도·보색 같은 기초 개념부터 실제 디자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풍부한 이미지 사례와 함께 시각적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고흐의 강렬한 파랑과 노랑의 대비, 로스코의 붉은 색과 면, 멘디니의 과감한 보색 조합, 아르마니의 절제된 회색 톤과 같이



실제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색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 색은 조화롭게 느껴지는가'를 감각이 아닌 구조로 설명한다. 한편 모교 산업디자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최동문은 현대 연세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모교에서 강사를 맡고 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Good Design', '디자인 인문학', '디자인 미학', '우리 미술 이야기',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컬러' 등의 저서가 있다.

제10회 메디치상 수상 김정아(90서양)

김정아 동문이 지난 9월 제10회 메디치상 대상을 수상했다. 거제에서 활동하는 김동문은 쓰레기와 폐기물이 이야기하는 현시대의 절박한 환경문제를 자신만의 독창적 미학으로 형상화했고, 예술적 언어로 승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단순한 개념 비판을 넘어, 실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며 실천과 교육을 병행하는 태도로 작품의 진정성을 강화했다. 심은록 심사위원장은 총평에서 "따개비와 쓰레기더미가 결합해 하나의 생명체처럼 공존하는 작업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비유하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조건을 성찰하게 한다"면서 "환경



문제를 넘어 바로크적 초상화의 장엄함 속에서 존재론적 질문을 확장하는 시도로 읽힌다"고 썼다. 메디치상을 받은 작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서울 학교재 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주로 개인전을 열었으나 거제시청에서 '바다 그 안의 나, 내 안의 바다'전을 2021년에 열고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2022년에 '플러그 앤 플레이'를 2023년에는 남해 삼자갤러리에 초대를 받고 '시간의 시각'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우수미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세이 '서성이는 발걸음' 출간 홍보람(97서양)

홍보람 동문이 에세이집 '서성이는 발걸음'을 펴냈다. 책에는 미술작가로서의 작업과정 사진과 시 등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2012년 제주로 내려가 살면서 자연의 형태들로부터 자신이 평소에 가져왔던 관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간 그는 모두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은 책의 첫 장인 '존재하기-위안의 형태들'에 담겼다. 이어 모든 것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즉흥적 결과물이 두



번째 장 '찰나의 존재들'에 담겼다. 홍동문은 "매 순간 어디로 다음 발을 디어야 하나 고민하고 주저하는 서성이는 발걸음이 이 책에 여린 궤적으로 남아있다"며 "이 순간들이 애써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무모하면서도 간절한 여러분 일상의 순간과 닿길, 우리 각자 노력이 서로 공명하고 지지 하길 빈다"고 말했다.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판화전공)을 졸업한 홍동문은 1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2025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서해영(02조소)

서해영 동문이 2025 양성평등문화상 신진문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스로를 "과정-중심적인 조각가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조각가"라고 소개하는 서동문은 '과정-중심적인 조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상과 예술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작업을 지향한다. 그는 여성주의적 시선과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 유연한 작업을 통해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천적 활동을 병행해 예술 창작에서 양성평등의 영역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 받아 신진문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동문은 수상 소감을 통해 "너무 놀라 믿기지 않았



고,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작업을 통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루고자 했던 양성평등 감수성, 변화에 대한 실천을 높이 평가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14년 서울 김종영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산에서 조각하기'를 가졌다. 꾸준히 개인전을 열어오고 있으며 제2회 대한민국 예술원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내 인생의 지금 63학번 회조과 동문전



김소선<강아지>

모교 6·3 회조과 동문전 '내 인생의 지금'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아트센터에서 오는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지난 198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에는 김경숙, 김소선, 김여옥, 김철효, 김해성, 김효숙, 박윤희, 배수자, 안재기, 유당주, 유양자, 이정, 이혜경, 정심미, 조용숙, 최정룡, 최지자, 최홍순 등 총 18명의 동문들이 참여한다. 한편 전시에 참여한 조용숙, 최홍순 동문이 축하 및

대학 시절의 경험과 함께 전시에 대한 기대와 소회를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조용숙/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고교시절과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게 참 좋았다. 다른 학과에 간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선선놀음이구나"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술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자신있는 추상화 붓질을 보면서 기도 죽고 캔버스에 쑥쑥 그려나가는 친구들한테도 질렸지만 그

래도 매일 그림을 그리기는 그랬다. 또 다른 낙이 있다면 오후 시간에 실기 수업을 빠지고 동시 상영하는 동대문극장에 가끔 혼자 영화를 보고 오는 것이었다. 대학 졸업 후의 각오가 하루도 빼먹지 말고 그림그리자였었는데, 웬걸 하루가 이틀되고 일주일도 하염없이 흘러가기도 하였다. 다시 정신 차리기도 하다가 1986년에 63동창모임을 갖고 그해부터 '서울미대 63전'을 시작했다. 많은 친구들도 참여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63전이 지속되다가 두 번인가 멈춘 적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내 인생의 지금'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계속 활동을 지속하면서, 또 각자의 개인전을 하면서 작가 생활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보니 '서울대 미대 63전'이 동기들에게 구심점이 되어 각자의 작업활동과 친교에 큰 영향을 주어 오랜 세월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최홍순/ "나는 1963년 모교 미술대학 입학학을 위한 자격 시험이 유일하게 적용된 해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자격시험을 본 후 고사 학과와 실기, 미술사도 함께 시험을 봤다. 서울대 전체 경쟁률이 4% 조금 넘었었는데, 미대의 경쟁률이 6.4: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원 70명 중 총 남학생은 19명 이었고, 회화과 30명 중 남학생이 11명 이었다. 당시 남학생들이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데 가족들의 반대가 강한 시절이었다. 우리는 이화동 법

최홍순<삶과 율동 Life and Rhythm> 대 뒤 공장 같은 곳에서 학창시절을 시작했다. 반학기 마친 뒤 수의대 건물로 이전하게 됐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인해 이화동 4거리가 혼란할 때였고, 나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종로 경찰서에 하루 구금된 뒤 훈방 되었다. 대학시절 뉴욕제과라는 빵집과 다방 학림, 쌍과부집이라는 술집을 주로 다녔다. 2년의 대학 생활 후 군대에 입대했다"

후원광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22회 6·3 회조과 동문전

내 인생의 지금

2025.10.24 fri _ 10.29 wed

참여작가

김경숙 김소선 김여옥 김철효 김해성 김효숙 박윤희 배수자 안재기
유당주 유양자 이정 이혜경 정심미 조용숙 최정룡 최지자 최홍순

H Y E H W A 혜화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02-747-6943

VERI LUX
TAS MEA

시, 조각, 빛, 그리고 찬미 김세중(46조소) 외 2인

1986년 작고한 김세중 동문과 김남조, 조광호 작가의 3인전이 김세중미술관에 서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렸다. 이번 특별전에는 시 19편, 조각 작품 13점, 스테인드글라스 9점이 선보여졌다. 서로 다른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세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조망하며, 시대와 종교, 장르를 초월한 예술적 교감을 조명하는 전시였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열린 개막전에는 문화계 대부(代父)인 김종규 전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동문은 1954년부터 1986년까지 모교 조



소과 교수를 역임했다. 모교 미술대학 학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한국가톨릭 미술가협회 회장, 서울 조각회 초대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현대조각의 기틀을 다졌다. 1983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하여 과천관 준공과 개관전을 총괄하던 중, 1986년 개관을 두 달 앞두고 별세하였다. 1986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후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재)김세중기념사업회와 김세중조각상이 제정하여 조각 분야 후학 양성과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Light for life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의 특별기획전 'Light for life'가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문의 평면 회화 작품과 함께 세라믹 유리공예를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김 신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주로 천주교회 성당에 설치된 창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지만, 국내 전시를 통해 스테인드글라스가 공개되는 것은 드물었다"며 "이번 특별전시를 위해 김 신부가 하늘과 땅을 주제로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 시절



서예를 익힌 후 모교 회화과에서 서양미술을 접한 김동문은 대학원 졸업 후 서울 성신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가톨릭 신앙을 접했다. 1969년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에 입학했으며, 입학 1년 만에 도미니코회 영성을 통해 성소를 느끼고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1989년 앙굴렘 세례자요한성당을 시작으로, 1998년 에브리 성당 등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 안기순(78회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아트디렉터 안기순 동문이 미국 Belóved Gallery 주최 Akiane Kramarik(아키아나)전에 한국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해 전시회를 개최한다. 아키아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수 초상화로 인정받는 그림인 Prince of Peace(평강의 왕)을 불과 8세에 그려 오프라 윈프리 쇼, CNN 등에 소개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교회 지하5층 사랑아트갤러리, 아트채플, 복도를



10개 존으로 재구성해 진행된다. 대표작 20여 점과 몰입형 영상, 높이 27m LED 작품, 영화 상영 등을 통해 관람객은 작가의 신앙과 예술 여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도난 당했던 <Prince of Peace>가 20년 만에 작가에게 돌아온 뒤 해외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된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전시는 오는 11월 2일(일)부터 12월 7일(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전시를 개최한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천재 소녀에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

8살에 그린 이 예수 초상화로 오프라 윈프리 쇼, CNN 등에 소개되며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 소녀.

이제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아키아나의 놀라운 여정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2025. 11.02 - 12.07

비러브드갤러리.org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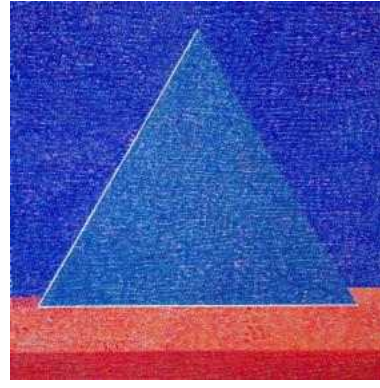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의교회 지하5층(서초역 3. 4번 출구)

주최 **BELÓVED**
GALLERY

©Akiane Kramarik

손문자 초대전 손문자(62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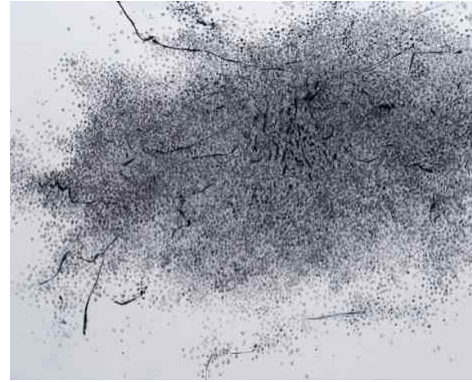
손문자 동문의 초대전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윤에서 열렸다. 손동문은 그동안 종교적 신앙심을 근원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해왔다. 그의 작품은 담백하면서도 세밀한 구성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신앙인이자 예술가인 그는 행복과 불행의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그의 색채와 형태로 신앙 속에서 생활하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평면적이면서도 분할된 순수한 도형들의 조합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타피스트리를 보는 것과도 같다. 이번 전시에는 성스러운 주제를 바탕으로 사실적인 형상보다는 대상의 외관을 해체하여 스펙트럼처럼 면을 나누어 주관적인 색채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됐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뒤 1980년대까지 디자인, 도자, 서예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파리에 체류하며 그랑쇼미에르에서 수학했다. 한국과 미국, 파리 등을 오가며 16회 이상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점 · 선 — 감각 차명희(66회화)

차명희 동문의 개인전 '점 · 선 — 감각'이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뮤지엄호두 봄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차동문의 신작을 중심으로 40여 점의 회화 및 드로잉 작품이 선보여진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동양화의 재료와 정신을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이후 전개된 근작을 중심으로, 점과 선이 자유롭게 유평하는 평면 속 세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제목 '점 · 선 — 감각'은 작가가 오랜 세월 탐구해 온 회화의 근본적 언어를 집약한 것이다. 점과 선, 여백이 어우러진 화면은 동양



소장되어 있다.

화의 전통을 동시대 미술로 확장하는 동시에, 회화가 여전히 유효한 사유의 공간임을 증명한다. 한편 차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동양화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수의 단체전 및 개인전을 열었으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흙과 대화를 나누고 황현숙(66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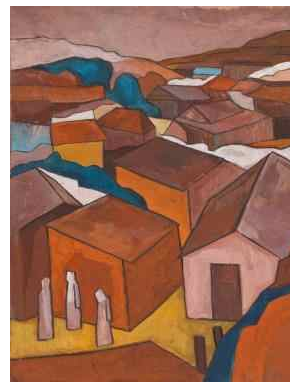
황현숙 동문의 개인전 '흙과 대화를 나누고'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북촌로에 위치한 세지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흙의 특성에 장단을 맞추듯 형태를 조절하여 형성시킨 추상적 도자 작품과, 단단하고 힘이 있는 창의적 생활 도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도자 조형작품들이 선보여졌다. 황동문은 이번 전시에 대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흙의 습도에 따라 얻어지는 형태들은 인간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



한다. 또한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행복의 기분을 찾는 휴식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황동문은 U.C Berkeley 대학원에서 도자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4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울회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모교를 포함하여 서울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Unfolding Nature 이상국(67회화)

이상국 동문의 개인전 'Unfolding Nature'가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가나아트 한남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1970-80년대 자신이 자란 서울 서북부 산동네와 공장지대, 그곳의 인물들을 주요 소재로 삼아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자연의 요소를 해체·변주하며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탐구했다. 가나아트 관계자는 "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 서구의 현대미술 경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시기, 이상국은 그 흐름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모색하고자 했다. 단색화나 미니멀리즘이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는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회화적 실험을 통해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라며, "이번 전시는 이상국의 회화적 탐구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자 그 의미를 다시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동문은 1977년 출판문화회관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2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밖에도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11년 제12회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Homage to 박동준 2025 김호득전 김호득(69회화)

김호득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갤러리 분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고(故) 박동준 선생의 유지를 잇기 위해 만들어진 박동준기념사업회에서 매년 한차례 갤러리분도와 작가를 초대하여 여는 전시의 일환이다. 김동문의 작품의 화두는 생명력의 분출이다. 그는 먹과 한지의 다양한 변주로 다양한 설치작업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삶을 달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동문은 1986년 관훈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이후 37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제 15회 이중섭 미술상(2004), 제 4회 김수근 문화상 미술상(1993) 등을 수상했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Contact & Floating 이상길(83조소)

이상길 동문의 개인전 'Contact & Floating'이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재료가 지닌 물성과 표면의 흔적을 통해 점, 선, 면, 매스의 조형 언어를 선보였다. 단순하고 정제된 형태 속에서 존재와 무한성, 사유의 공간을 제시하는 입체 작품 15여 점이 전시됐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관계자는 "작가의 작품은 현대적 조각이 지닌 물리적 차원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그 내면의 의미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일본 다마 미술대학 조각전공,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금속주얼리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미국 프리먼재단 아시아 작가상,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문화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점, 선, 면, 매스의 입체 조형언어로 단순한 형상 구축을 넘어 사유의 공간을 창출한다. 물질의 무게와 긴장을 시각화하며 생성과 소멸, 존재와 부재,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끝나지 않은 장면 백연수(94조소)

백연수 동문의 개인전 '끝나지 않은 장면'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김종영미술관 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백동문의 6년 만의 개인전으로 완료의 미완이 아닌, 진행형의 모색을 기록하는 전시다. 김종영 미술관 별관 1,2,3 전시실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에서 1전시실은 최신작 '드러나는 것', '끝나지 않은 장면' 연작으로 꾸러졌다. 2전시실에는 사각기둥 원목 일부를 깎아 일상 사물을 재현한 작품이, 3전시실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소재로 한 '쌓기 연습' 연작이 전시된다. 백동문은 "(아이를 키우면서) 쉬지는 않았지



만 활발하게도 못 하고 띄엄띄엄 작업을 이어왔다"며 "생활의 안정이 작품에도 스며들어, 제 작업이 늘 프레임 안에 붙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요즘은 디지털로 기록되고 사라지는 게 불안하다. 눈앞에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 꼭 필요하다"며 "나무는 제 노동을 가장 잘 받아주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백동문은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여성 조각가로서 여류 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시(時詩): 시간의 시 박제성(98디자인)

박제성 동문의 개인전 '시시(時詩): 시간의 시'가 지난 8월 28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다. AI, 로봇, 3차원 입체 영상(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대의 기록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과거·현재·미래가 교차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시한다. 전시는 암각화가 지닌 다층적 시간성을 기술 언어로 시각화한다. 전시장 외부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조각이 설치되며, 내부 중앙에서는 로봇 팔이 3차원 입체 영상(홀로그램)을 투사



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표현한다. 울산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이 시대와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한 박동문은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감각과 인식, 인간의 주체성을 탐구해온 미디어 아티스트다. 미디어,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봇, 뇌파 인식 등 첨단 기술을 예술의 언어로 확장해왔다. 현재는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삼페인 슈퍼노바 이진준(01조소)

이진준 동문의 개인전 '삼페인 슈퍼노바'가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서울 성북로 BB&M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가장 눈부신 찰나가 가장 빠른 소멸을 예비한다는 동시대 존재의 역설을 호출하는 전시였다. '슈퍼노바'라는 이름은 한때 청춘의 황홀과 허무를 노래한 팝의 상징이자, 물리학이 발견한 초신성의 이름이었다. 문화와 과학, 기술과 은유가 겹쳐진 이 명명은, 이동문의 손에서 다시 존재론적 질문으로 되살아났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미술로 전공을 전환했다.



모교 조소과에서 학, 석사를, 영국 왕립예술대학(RCA) 석사, 옥스퍼드대 러스킨 미술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 헤르츠랩 초청 작가(2023),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펠로우(2024)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부교수, 옥스퍼드대학 펠로우, 뉴욕대학교(NYU) 겸직교수로서 연구와 창작을 병행하며, 영국 왕립예술학회(FRSA) 펠로우이자 왕립조각가협회(MRSS) 정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타오르는 그림자 양수연(07동양)

양수연 동문의 개인전 '타오르는 그림자'가 지난 9월 9일부터 26일까지 더소소에서 열렸다. 양동문은 '죽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불꽃과 연기, 장갑 등의 소재를 통해 그림자의 언어를 구성한다. 불은 생명의 빛을 품으면서도 꺼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성을 내포하고, 연기는 소멸 이후에도 남아 떠도는 흔적을 드러낸다. 수술용 장갑과 수술 집기들은 인간의 몸을 둘러싼 기억과 상처를 환기하며 흔적과 부재라는 이중성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이미지는 죽음이라는 실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실체를 둘러싼 감각적이



고 정서적인 경험을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죽음을 둘러싼 감각적 잔상과 정서적 울림을 탐색하는 시도로서 꾸러졌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양동문은 이후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모교 동양화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가송 아트 어워드(2021), 애셔스트 신흥 예술가 상(2021)을 수상했다. 6회의 개인전 및 국내외에서 수많은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방금 전의 소문과 오래된 증거로부터 최가영(08동양) 외 1인

최가영 동문과 반재하 작가의 2인전 '방금 전의 소문과 오래된 증거로부터'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챔버에서 열렸다. 최동문과 반재하 작가는 중국 대련, 단둥, 선양, 장춘, 연변, 도문 등지를 여행하며 수집한 기록과 물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연결과 단절, 우회의 감각을 전시로 풀어냈다. 한때 철도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었던 동북아시아 도시들의 과거와 현재를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구성하며, 분단과 식민주의가 남긴 유



통 시스템의 흔적을 탐색하는 본 전시는 오는 10월 30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예정된 리서치-기반 퍼포먼스로 확장될 예정이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6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열었다. 2023년에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이국정서'를 주제로 작업을 했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SURFACES: 표면들 하수민(15동양)

하수민 동문의 개인전 'SURFACES: 표면들'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엠 갤러리에서 열렸다. 하동문은 그동안 낡은 필름 사진을 화판 크기로 확대하고, 그 이미지의 흐려진 외곽선과 바랜 색감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찍혔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면에 자신이 부재한다는 사실, 기억되지 않은 채로 남은 잔류의 감각에 주목한다. 작업 노트에 따르면 그는 축적과 소멸, 그 이중적인 시간



의 흐름에 주목하며 그의 작업은 특정한 순간은 다시 불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순간을 둘러싼 공기와 감각의 흐름을 화면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하동문은 졸업 후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0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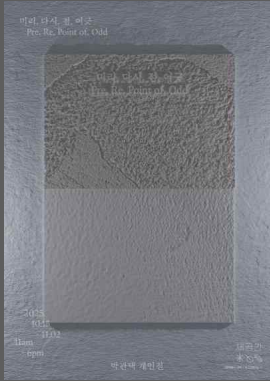
내 인생의 지금
6·3 회조과 동문전
10.24-10.29
혜화아트센터



바이블도자예술관 2025 도예전
서동희(66응미)
10.22-12.22
바이블도자예술관



찬란한 그러면서 허망한
정상곤(83서양)
10.17-11.15
운중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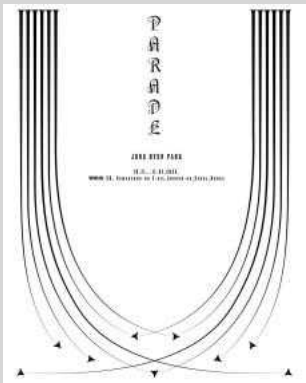
미리, 다시, 점, 어긋
박관택(02서양)
10.15-11.2
새공간



낮선자의 포에지
엄태정(58조소)
10.14-11.30
동탄복합문화센터



박지원 개인전
박지원(19서양)
10.11-11.2
YK PRESENTS



PARADE
박종현(15서양)
10.11-11.1
WW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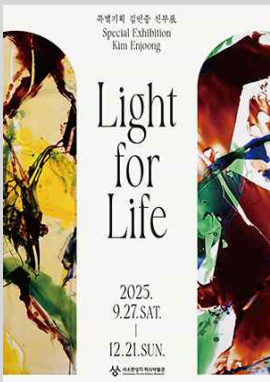
선데이
이페로(95동양)
10.9-11.1
라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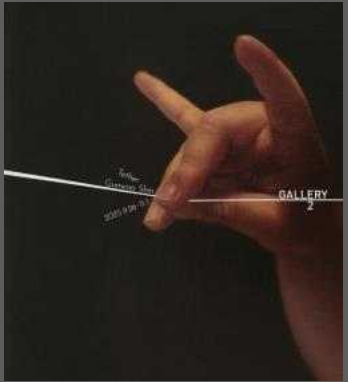
점·선 - 감각
차명희(64회화)
10.2-12.28
뮤지엄호두



차원확장자
기민정(05동양) 외
10.1-11.23
서울대학교미술관



Light for Life
김민중(59회화)
9.27-12.21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Tether
신건우(97조소)
9.26-11.1
갤러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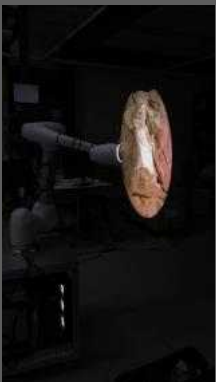
아아! 동양화: 영원한 파라디소
황규민(석23줄 동양) 외
9.25-11.30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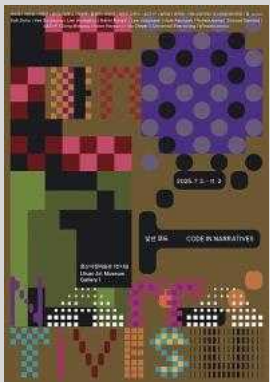
끝나지 않는 장면
백연수(94조소)
8.29-11.2
김종영 미술관



김창열 회고전
김창열(48회화)
8.22-12.21
국립현대미술관



시시(時詩): 시간의 시
박제성(98디자인)
8.8-26.1.25
울산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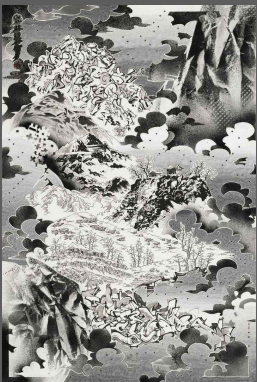
낮선코드
서도호(81동양) 외
7.3-11.2
울산시립미술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김종영(교원)
6.20-11.2
김종영미술관



두 시선
전이린(86산미)·박상철(86산미)
6.15-12.15
갤러리 무위도식



석양에 내려앉은 눈
손동현(98동양)
5.9-11.27
이상범가옥